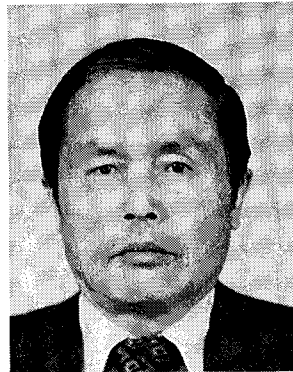


논 설

“국제무대를 바라보며” — 농업토목부문을 중심으로 —

한 옥 동(농학박사, 대한민국토설계기술공단 고문)

UR협상타결 이후 항간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켜 나가야만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문구앞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하여라는 비장한 접두수식어마저 붙기도하니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듯하다. 국가경쟁이란 문자그대로 세계시장을 무대삼아 벌어지는 일종의 경제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원래 어떠한 형태의 경쟁이건 승자만이 그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패자는 처량함을 면치 못하게 마련이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농업토목분야도 이 경쟁대열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니, 승리의 길로 접근하기 위하여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지피지기(知彼知己)한 후에 경쟁에 임하는 예지(叡智)를 가져야 한다.

즉, 정통한 국내외정보를 가지고 경쟁에 대응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는 현시점에서 각국이 지니고 있는 기술수준이나 또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를 얼마나 지니고 있는 것일까?

아마 대단히 한정된 범위내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처해있는 현 조건하에서는 누구나 외국의 정보를 접하고 강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유포되는 기술정보 인쇄물들이 영(英)·불(佛)·일(日)·중(中)·로(露) 등 원어로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해독(解得)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해의 폭도 넓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이의 해결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만을 전담하는 국립과학도서관 같은 기구를 중앙단위에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면 한다. 이 기구에서는 일관성있게 모든 정보를 수집 소장하는 역할을 할 뿐만아니라, 외국어별 해독 전문요원을 두고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요청이 있을때는 관련 정보를 번역 제공하여주는 편의를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누구나 장님 코끼리다리 만져보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는 오판을 부르기 쉽기 때문이다. 좋은 예로, 호주에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한편 최근에는 Computer가 보편화 되어가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다양한 기술상품의 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세계각국의 사정은 경제·기술수준, 기후풍토를 포함한 자연조건등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기술 또한 매우 다양할 것이다.

우리는 자고로 우리 농업에 적합한 기술, 즉 저수지, 양수장, 관정등 수리시설물과 경지정리, 개간, 간척 등에 관한 내수충족형 기술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세계시장으로 나가가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감이 든다. 사막지대에서의 관정굴착, 저온지대 또는 고염분 평야지대에서의 배수시설, 고온건조지대에서의 질수관개시설등 국제경쟁의 광장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기술부문이 많으므로 시장확대차원에서 더욱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전천후 기술보유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국제감각을 가진 인력배양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모든일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들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어지느니만치 국제감각을 가진 인력을 많이 양성하여 독창적이고도 개성있는 기술상품을 국제시장에 내놓을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